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7년 한국 경제 전망
- 성장률 2.6%로 3년 연속 2%대 저성장

목 차

■ 2017년 한국 경제 전망

- 성장률 2.6%로 3년 연속 2%대 저성장

Executive Summary	i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1
2. 대외 경제 여건	9
3. 2017년 한국 경제 전망	13
4. 시사점	18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홍 준 표 연 구 위 원 (2072-6214, jphong@hri.co.kr) 외 6명

Executive Summary

□ 2017년 한국 경제 전망

■ 최근 국내 경제 동향

현재 국내 경제는 시장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불황 국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수출의 반등 신호와 제조업 내 시장 상황이 다소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만약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가 경제 내 다른 부문들로 확산될 수 있다면 향후 국내 경제 방향성이 불황에서 회복으로 바뀌는 경기전환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경제 전반의 체력을 감안할 때 회복 강도는 매우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 대외 경제 여건

세계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2016년에 회복세가 둔화된 선진국은 2017년에도 회복세가 반등할 여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브렉시트의 불확실성과 완화적 통화정책의 한계 등의 영향을 받는 유럽과 일본은 경기 회복세가 오히려 둔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흥국은 2016년에 경기 저점을 딛고 2017년에는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은행부실 등의 경기 하방 리스크가 있겠지만, 서비스업 육성 및 부동산 경기 회복 등 내수시장 회복으로 경기 둔화세는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이 완화되면서 2016년에 나타나고 있는 완만한 상승세가 2017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비OPEC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17년에는 공급 과잉이 완화되는 점이 유가의 완만한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OPEC 산유국의 시장 점유율 경쟁 및 달러화 강세 등으로 유가 상승 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국 환율 전망을 살펴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달러화는 강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 지속으로 유로화는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엔화는 양적완화정책 지속에 따르는 약세 요인보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르는 안전자산 성격이 부각되는 강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강보합이 전망된다.

■ 2017년 한국 경제 전망

2017년 한국 경제는 수출 증가세 반등으로 성장률 자체만으로는 2016년보다 소폭 상승하겠지만, 내수 경기는 부진한 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증가세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상승,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악화 및 부동산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은 소비 개선을 제약할 수 있는 요

인이다. 또한 인구고령화 진전 및 주거비 부담 등의 소비를 억누르는 구조적 요인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2017년에는 부동산 과잉 공급 및 가계부채 관리 등 건설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부각될 우려가 있다. 또한 SOC 예산 규모가 9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책정되는 등 공공 부문에서도 건설투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회복세로 반등할 전망이다. 다만 올해 감소폭을 고려하면 투자 확대로 해석하기는 곤란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에도 대내외 수요 부진, 산업구조조정, 내수 경기 침체 등의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 요인을 여전할 것이다. 다만,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등 민간 부분의 투자 유인은 설비투자 확대를 기대할 만한 요인이다.

수출은 세계 경기의 완전한 회복, 국제 유가 상승세 지속, 달러화 강세 및 엔화 강보합세에 따르는 환율 여건 개선 등의 요인으로 2016년의 감소에서 2017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2017년에 건설 및 운송수입 부진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2016년보다 감소한 890억 달러 내외로 전망된다.

<2017년 국내 경제 전망>

구 분	2015년 연간	2016년			2017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	2.6	3.0	2.1	2.5	2.4	2.8	2.6
민간소비 (%)	2.2	2.7	1.1	1.9	1.7	2.3	2.0
건설투자 (%)	3.9	10.3	4.8	7.3	3.0	4.6	3.9
설비투자 (%)	5.3	△3.6	△1.5	△2.5	2.6	1.4	2.0
수출증가율 (%)	△8.0	△10.0	△0.3	△5.2	5.8	2.0	3.8
실업률 (%)	3.6	4.1	3.4	3.7	4.2	3.6	3.9
소비자물가 (%)	0.7	0.9	0.8	0.9	1.3	1.4	1.4

주 : 2016년 하반기부터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 시사점

2017년에도 2%대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첫째**,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에 주력하여 내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기업 투자에 대한 신속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력과 고용 창출의 원천인 투자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건설투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국내 수출 회복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 주력산업의 수출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에 힘써야 한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구조 개혁, 노동공급 확충, 생산성 혁신, 재정건전성 강화 등의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 (경기, 미약한 회복)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에 비해 높아지는 모습이나 경기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상 뚜렷한 회복 신호는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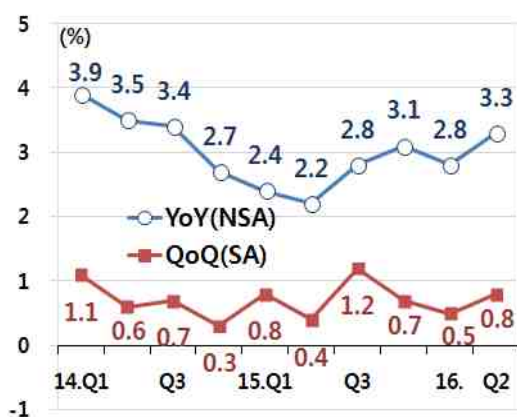
- 2016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정책요인에 의한 민간소비 확대, 건설투자의 호조 등의 요인으로 1분기에 비해 상승

-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015년 4분기에 0.7%, 2016년 1분기 0.5%, 2분기 0.8%를 기록
-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015년 4분기에 3.1%에서 2016년 1분기 2.8%로 하락하였다가 2분기에 3.3%로 다시 3%대 수준으로 진입

- 새로이 개편된 동행지수¹⁾가 상승 추세를 지속중인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선행지수의 움직임에서는 뚜렷한 경기 회복 신호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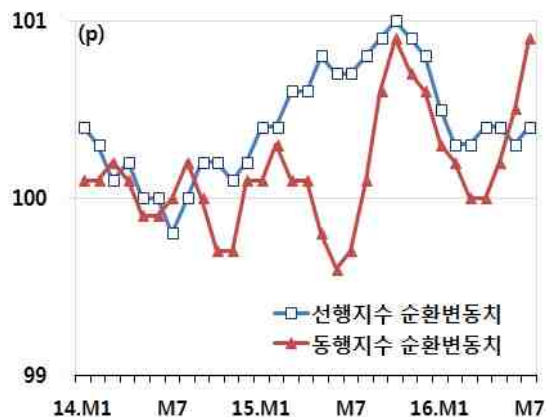
- 현 경기상황을 나타내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월을 저점으로 3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시현
 -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4월 100.0p, 5월 100.2p, 6월 100.5p, 7월 100.9p
- 향후 경기의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최근 100.3~100.4p의 협소한 구간에서 횡보하는 모습
 -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1월 100.5p, 2~7월 100.3p와 100.4p에서 등락

<분기 경제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



자료 : 통계청.

1) 통계청은 최근 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경기종합지수의 설명력 향상을 위해 경기종합지수를 개편.

○ (소비절벽 가시화 우려) 감세 정책이 종료되면서 하반기 이후에 소비절벽이 우려

-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종료가 내구재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전반적인 소비 경기를 끌어내리는 모습

· 7월 내구재 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중단 등으로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4월 4.2%, 5월 5.4%, 6월 9.0%, 7월 4.3%

※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4월 7.8%, 5월 12.0%, 6월 13.4%, 7월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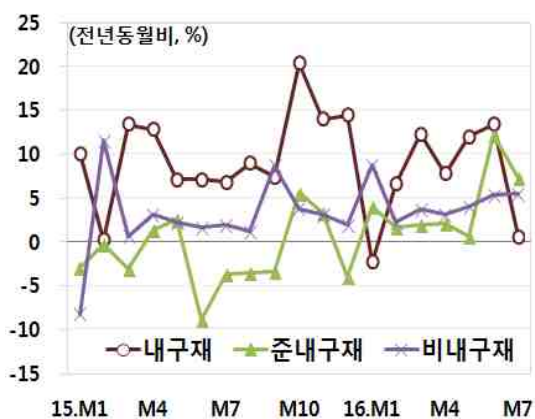
· 한편 준내구재와 비내구재는 최근에 들어 미약하나마 상승 기조를 유지(7월 각각 7.3% 및 5.5%)

- 소득 부진에 따른 구매력 정체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감세정책이 종료되는 하반기 이후에 소비절벽의 가능성이 우려

· 향후 소비 경기의 방향성을 판단해 주는 지표인 소비재수입액 증가율이 최근에 들어 부진한 모습을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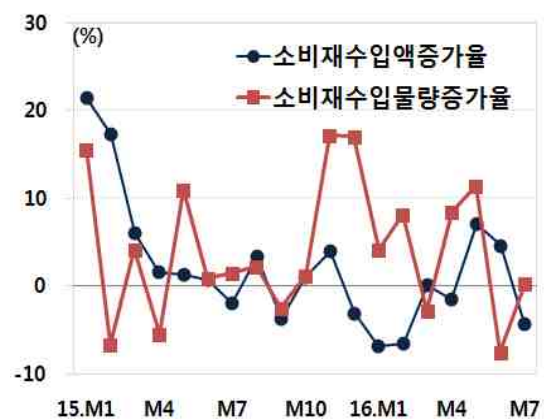
※ 소비재수입액 증가율(YoY): 4월 Δ 1.6%, 5월 7.0%, 6월 4.6%, 7월 Δ 4.4%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소비재 수입액 및 수입물량 증가율>



자료 :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 (설비투자 침체 장기화) 시장 수요의 절대 부족이 여전히 설비투자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하반기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까지 고려하면 향후 경기 회복 가능성 불확실

- 2분기 소폭 회복세를 보이던 설비투자가 7월에 들어 급격한 침체 국면으로 진입

· 여전히 존재하는 과잉생산능력의 해소 미흡과 일부 제조업의 구조조정 여파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6월의 2.2%에서 7월에 $\Delta 12.3\%$ 로 급감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4월 $\Delta 2.8\%$, 5월 3.0%, 6월 2.2%, 7월 $\Delta 12.3\%$

· 또한 전기대비 기준 설비투자지수 증가율도 6월의 4.8%에서 7월에 $\Delta 11.6\%$ 로 감소 국면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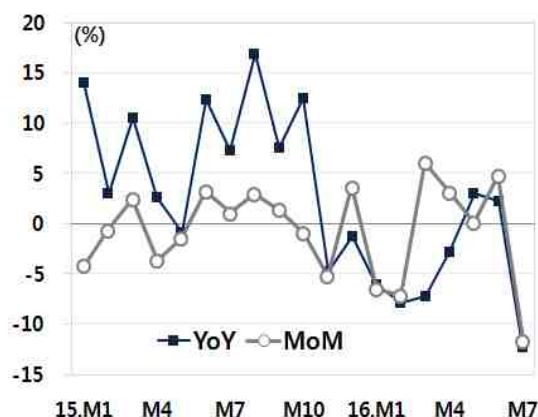
- 다만 설비투자 선행지표의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어 경기 회복 또는 침체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

·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이 6월과 7월에 모두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

※ 자본재수입액 증가율(YoY): 4월 $\Delta 6.4\%$, 5월 2.1%, 6월 $\Delta 3.5\%$, 7월 $\Delta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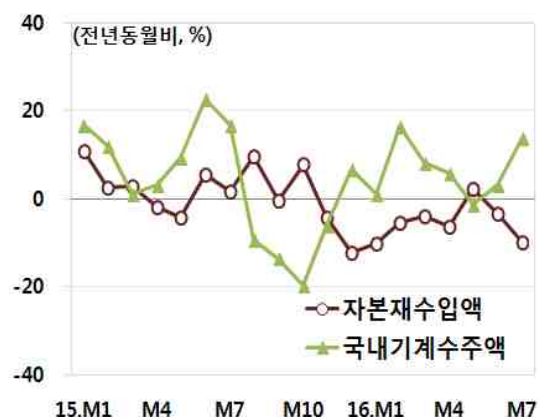
※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YoY): 4월 5.8%, 5월 $\Delta 1.4\%$, 6월 3.1%, 7월 13.8%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주 :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 (건설투자의 나 홀로 호조)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성과 건설수주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건설투자의 호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7월 건설기성액 증가율(동행지표)은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높여 가는 모습

· 7월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2.8%로 5월 이후 3개월 연속 20% 대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

※ 건설기성 증가율(YoY): 4월 16.5%, 5월 21.8%, 6월 21.4%, 7월 22.8%

· 발주자별로는 민간 부문이 7월중 31.9%로 전체 건설 경기를 견인하고 있는 반면 공공 부문은 △2.0%의 감소세를 시현

※ 공공건설기성증가율(YoY): 4월 △6.1%, 5월 1.1%, 6월 3.5%, 7월 △2.0%

※ 민간건설기성증가율(YoY): 4월 26.9%, 5월 30.6%, 6월 29.6%, 7월 31.9%

- 건설수주액(선행지표) 상으로도 7월 중 두 자릿수 증가율을 시현하면서 건설 경기의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

·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2분기 중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었으나 7월에 들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

※ 건설수주 증가율(YoY): 4월 19.6%, 5월 △23.6%, 6월 △7.3%, 7월 44.4%

※ 공공건설수주증가율(YoY): 4월 △54.0%, 5월 △13.5%, 6월 △44.0%, 7월 1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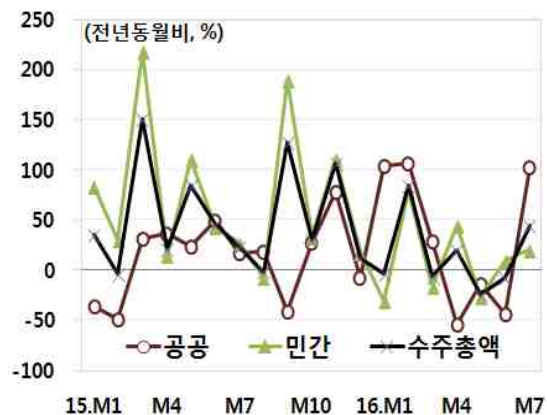
※ 민간건설수주증가율(YoY): 4월 44.5%, 5월 △26.5%, 6월 9.7%, 7월 20.7%

<건설기성액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건설수주액 증가율>



자료 : 통계청.

○ (수출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최근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출단가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수출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

- 수출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중이었으나, 8월에 들어 소폭 증가세로 전환

· 최근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따른 수출단가의 기저효과(base effect)가 8월 수출 증가세 전환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

※ 수출액 증가율: 4월 $\Delta 11.1\%$, 5월 $\Delta 6.1\%$, 6월 $\Delta 2.9\%$, 7월 $\Delta 10.3\%$, 8월 2.6%

· 그러나 최근 시장수요의 회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출 물량이 6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향후 수출경기의 상승 기조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 수출물량 증가율: 4월 5.4% , 5월 2.7% , 6월 $\Delta 2.9\%$, 7월 $\Delta 1.6\%$, 8월 $\Delta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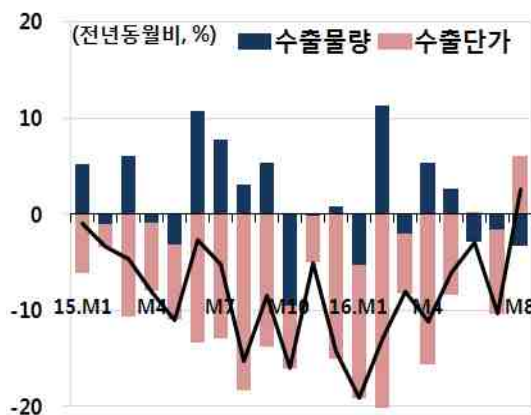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주요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아세안 시장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 대 중국 수출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4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중이나 올해 들어 감소폭이 축소되는 추세는 긍정적으로 평가

※ 대 중국 수출액 증가율: 4월 $\Delta 18.3\%$, 5월 $\Delta 9.1\%$, 6월 $\Delta 10.3\%$, 7월 $\Delta 9.4\%$, 8월 $\Delta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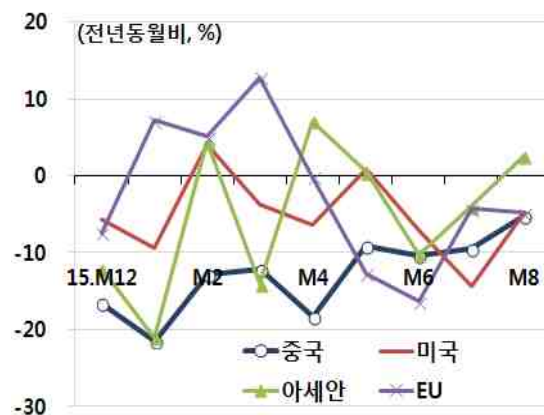
· 한편 8월중 대 아세안 수출은 2.6% 의 소폭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대 미국 수출과 대 EU 수출은 각각 $\Delta 4.8\%$ 감소

<월별 수출 증가율>



자료 :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제조업 고용 불안 현실화) 고용지표의 외형상 모습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향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에 불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증

- 7월 실업률과 고용률은 전년동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외형상 고용시장은 양호2)

· 7월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의 3.7%보다 낮아졌으며, 7월 고용률은 61.2%로 전년동월 수준(61.1%)와 비슷한 수준

- 취업자수 증가분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 고용시장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

· 취업자수 증가분은 1월에 전년동월대비 33.9만 명에서 7월에 29.8만 명으로 감소

· 제조업의 취업자수 증가분은 1월에 14.5만 명에서 7월중 △6.5만 명으로 대폭 감소세로 전환

※ 취업자 증감(YoY): 4월 25.2만명, 5월 26.1만명, 6월 35.4만명, 7월 29.8만명

※ 제조업 취업자 증감: 4월 4.8만명, 5월 5.0만명, 6월 1.5만명, 7월 △6.5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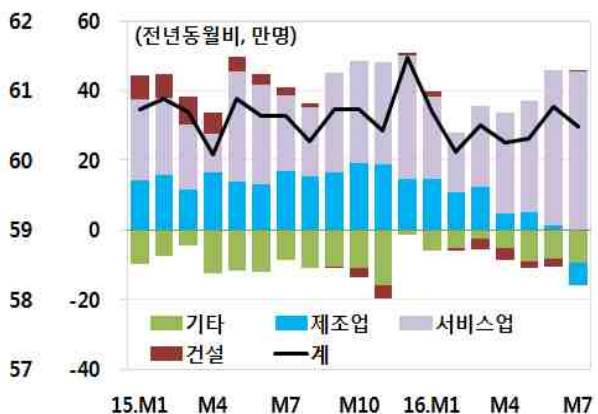
· 한편 7월 기준 여타 산업의 취업자수 증가분은 서비스업 45.7만 명 증가, 건설업은 0.1만명 증가

<실업률 및 고용률>



자료 : 통계청.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자료 : 통계청.

2) 실업률과 고용률은 계절성이 강하여 최근의 추세보다는 전년동월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준디플레이션 탈출 실패)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등 공급측 물가가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가운데,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 탈출에 실패하면서 준(準, quasi) 디플레이션³⁾ 국면이 고착화되는 모습

-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등 공급측 물가의 감소세가 지속중

· 수입물가는 2016년에 들어 두 자릿수의 감소율에서 벗어난 모습이나 8월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7% 대를 유지

※ 수입물가 상승률(YoY): 4월 △7.1%, 5월 △5.1%, 6월 △4.9%, 7월 △7.1%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연초 △3%대에서 최근 △2%대로 감소세가 축소

※ 생산자물가상승률(YoY): 4월 △3.0%, 5월 △3.0%, 6월 △2.7%, 7월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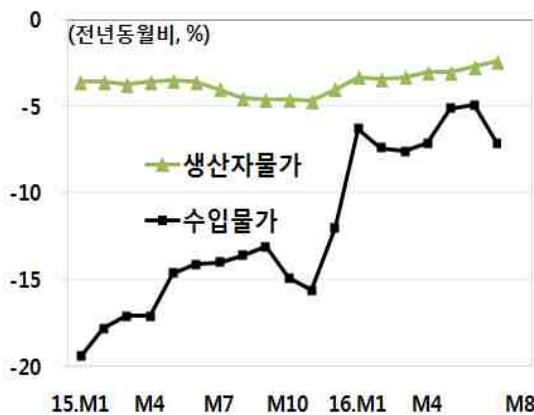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에서 4월중 전년동월대비 1%대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5월 이후 0% 대의 낮은 수준을 기록

·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4%로 7월의 0.7%보다 하락

※ 소비자물가상승률(YoY): 4월 1.0%, 5월 0.8%, 6월 0.8%, 7월 0.7%, 8월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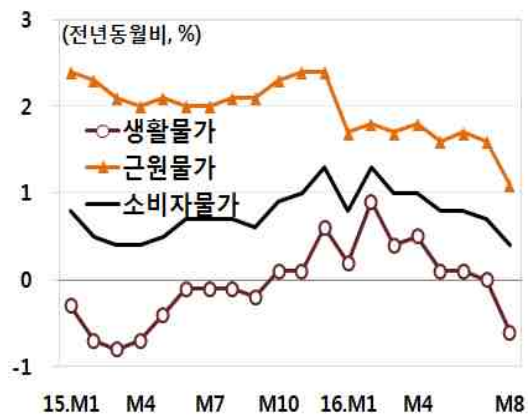
·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⁴⁾) 상승률은 7월 1.6%에서 8월에 1.1%로 하락하였으며, 생활물가⁵⁾ 상승률도 같은 기간 0.0%에서 △0.6%로 하락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자료 : 한국은행.

<근원물가 및 생활물가 상승률>



자료 : 통계청.

3) 디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국면으로 정의되나, 준디플레이션은 정립된 정의가 없음. 다만 이 용어를 사용했던 문헌들의 문맥상 의미를 보면 생산자물가 등 공급 물가가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낮은 플러스 수준(0%대)을 보이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4) 소비자물가 품목중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곡물 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제외한 429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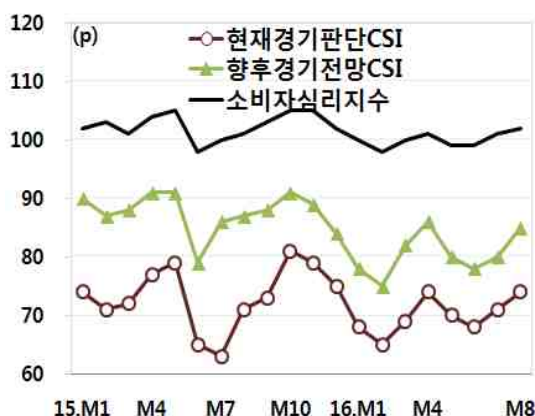
5) 소비자물가 품목중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2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소비자물가지수 품목수는 481개).

○ (경제 주체들의 긍정적 시각 확대) 소비자와 기업 모두 강하지는 않으나 심리 지수가 개선되는 모습

- 강하지는 않으나 가계 소비심리 개선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발견
 -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과 8월에 기준치 100p를 상회하며 긍정적인 신호가 관찰
 - ※ 소비자심리지수: 4월 101p, 5월 99p, 6월 99p, 7월 101p, 8월 102p
 - 8월 현재경기판단CSI도 74p로 7월의 71p보다 상승하였으며, 향후경기전망CSI도 같은 기간 80p에서 85p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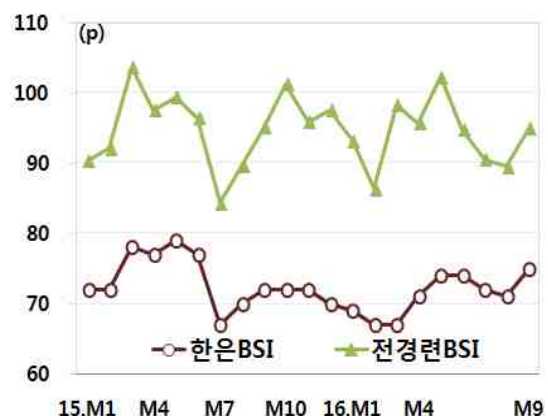
- 기업투자심리도 9월에 들어 8월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 수준 자체에 대해서는 기업심리 회복 가능성을 높게 보기 어려운 상황
 - 전경련BSI(전망)는 5~8월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다 9월에 들어 반등하는 모습, 단 여전히 기준치 100을 하회
 - ※ 전경련BSI: 4월 95.7p, 5월 102.3p, 6월 94.8p, 7월 90.5p, 8월 89.5p, 9월 95.0p
 - 한은BSI(업황전망)도 9월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뚜렷한 개선 조짐은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
 - ※ 한은BSI: 4월 71p, 5월 74p, 6월 74p, 7월 72p, 8월 71p, 9월 75p

<소비자심리지수(CCSI)>



자료 : 한국은행.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자료 :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2. 대외 경제 여건

① 세계 경기 및 교역 : 완만한 회복

○ (현황) 2016년에 선진국 경기는 회복세 둔화, 신흥국 경기는 미약한 회복세, 세계 교역은 증가세 둔화

- 선진국 경기 : 미국을 제외하고 수요 부진 및 브렉시트 등의 불확실성 등으로 회복세가 둔화
- 신흥국 경기 :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완만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으로 신흥국 경기는 미약한 수준이지만 회복세를 지속
- 세계 교역 : 글로벌 수요 부족 지속 등으로 증가세 둔화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경제성장률 추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세계 경제성장률	3.4	-	-	-	-	3.1	-	-
선진국	1.9	-	-	-	-	1.9	-	-
미 국	2.4	2.0	2.6	2.0	0.9	2.4	0.8	1.1
유로지역	0.9	0.6	0.4	0.3	0.4	1.7	0.6	0.3
일 본	0.0	1.2	△0.4	0.5	△0.4	0.5	0.5	0.0
신흥개도국	4.6	-	-	-	-	4.0	-	-
중 국	7.3	7.0	7.0	7.0	6.9	6.9	6.7	6.7
인 도	7.2	6.7	7.5	7.6	7.2	7.6	7.9	7.1
브 라 질	0.1	△2.0	△3.0	△4.5	△5.9	△3.8	△5.4	△3.8
러 시 아	0.7	△2.8	△4.5	△3.7	△3.8	△3.7	△1.2	△0.6
ASEAN-5	4.6	-	-	-	-	4.8	-	-
세계 교역증가율	3.7	-	-	-	-	2.6	-	-

자료 : 1) 연간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6년 7월).

2) 분기 (미국: 상무부 ; 일본: 내각부 ; 유로존: Eurostat ; 중국: 국가통계국 ; 인도: 중앙은행 ; 브라질: 중앙은행 ; 러시아: 중앙은행).

주 : 1) 분기성장률 (미국: 전기대비연율 ; 일본: 전기대비 ; 유로존: 전기대비 ; 중국: 전년동기대비 ; 인도: 전년동기대비 ; 브라질: 전년동기대비 ; 러시아: 전년동기대비).

2) ASEAN-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포함됨.

3) 세계 교역은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량 기준.

○ (전망) 2017년 선진국 경제는 미약한 회복세, 신흥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 세계 교역은 완만한 증가세 전망

- 선진국 경기 : 미국은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브렉시트의 불확실성과 완화적 통화정책의 한계 등의 영향으로 선진국 전반적인 회복세는 둔화될 전망
 - 미국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유로존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등으로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
 - 일본은 경기 부양 여력 제한으로 회복세가 둔화될 전망
- 신흥국 경기 : 중국은 완만한 둔화세, 인도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 브라질과 러시아는 미약한 회복세가 전망되는 등 국별 차별화가 나타나지만 전반적인 성장률은 최근 2년간 둔화에서 반등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은행부실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나, 서비스업 육성 및 부동산 경기 회복 등 내수시장 회복으로 경기 둔화세는 완만할 전망
- 세계 교역 :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하방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의 회복세로 세계 교역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IMF의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경제성장률 전망>

(%)

	2016년(E)			2017년(E)		
	2016. 7월 전망	2016. 4월 전망	2016. 1월 전망	2016. 7월 전망	2016. 4월 전망	2016. 1월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3.1	3.2	3.4	3.4	3.5	3.6
선진국	1.8	1.9	2.1	1.8	2.0	2.1
미 국	2.2	2.4	2.6	2.5	2.5	2.6
유로지역	1.6	1.5	1.7	1.4	1.6	1.7
일 본	0.3	0.5	1.0	0.1	△0.1	0.3
신흥개도국	4.1	4.1	4.3	4.6	4.6	4.7
중 국	6.6	6.5	6.3	6.2	6.2	6.0
인 도	7.4	7.5	7.5	7.4	7.5	7.5
브라질	△3.3	△3.8	△3.5	0.5	0.0	0.0
러시아	△1.2	△1.8	△1.0	1.0	0.8	1.0
ASEAN-5	4.8	4.8	4.8	5.1	5.1	5.1
세계 교역증가율	2.7	3.1	3.4	3.9	3.8	4.1

자료 : IMF.

② 국제 유가 : 완만한 상승

○ (현황) 2016년 국제 유가는 연초 급락에서 반등한 이후 완만한 상승세

- 국제 유가는 OPEC의 시장 점유율 경쟁으로 인한 공급 확대 예상과 미국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로 2016년 연초에 하락한 이후 완만하게 상승
 -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의 원유 공급 증가가 예상되면서 사우디-이란간 시장 점유율 경쟁으로 2016년에 원유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2015년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화 지수(주요국 통화대비)는 2015년 12월 94.1p에서 2016년 1월에 95.3p로 상승
 - 배럴당 국제유가(WTI, Dubai, Brent 3대 유종 평균)는 2015년 12월 37.1달러에서 2016년 1월 30.2달러로 하락. 이후 상승하면서 8월에 45.2달러를 기록6)

○ (전망) 2017년 국제 유가는 원유 공급 과잉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상승세 지속 전망

- 2017년 국제 유가는 비OPEC의 원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공급 과잉이 완화되면서 완만하게 상승할 전망
 - 비OPEC의 원유 생산량은 2016년 568만 배럴/일에서 2017년 564만 배럴/일로 감소할 전망7)
 - 다만, OPEC 산유국의 시장점유율 경쟁 및 달러화 강세 등으로 국제 유가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WTI 유가 추이 및 전망>

(달러/배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E)	하반(E)	연간(E)
WTI	93.0	48.8	40.0	46.5	43.3	48.5	55.1	51.8

자료 : 한국석유공사, EIA(2016.8, STEO).

- 주 : 1) 2016년 상반기까지는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실적치.
- 2) 2016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유가 전망치.

6) 자료 : 한국석유공사petronet.

7) 이는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인 960만 배럴/일의 약 58% 수준(자료 : U.S. Energy Information Agency, 2016년 8월, 'Short Term Energy Outlook').

③ 주요국 환율 : 달러화 강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변동성 확대

○ (현황) 2016년 달러화는 약세, 유로화는 강보합, 엔화는 강세 전환

- 달러화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지연으로 이전 연도의 강세 흐름에서 약세로 전환
 - 달러화 지수(주요국 통화대비)는 2016년 1월 95.3p에서 8월 89.7p로 하락
- 기타 주요국 통화 : 브렉시트 및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 성격이 부각되면서 유로화는 강보합, 엔화는 강세
 -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은 2016년 1월 0.920유로에서 8월 0.892유로로 하락
 -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2016년 1월 118.1엔에서 8월 101.3엔으로 하락

○ (전망) 2017년에 달러화는 강세, 엔화는 강보합, 유로화 및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

- 달러화 : 미국의 경기 회복세 지속 및 기준금리 인상 기조 유지로 강세 전망
- 유로화 : 양적완화정책 지속으로 약세 전망
- 엔화 : 양적완화정책 지속에 따르는 약세 요인보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시 부각되는 안전자산 성격에 따르는 강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강보합 전망
- 위안화 : 중국 정부의 위안화 가치 정상화 노력 지속이 예상되면서 평가절하 가능성으로 약세 전망

<국제투자은행의 주요국 환율 전망>

구분	유로/달러			엔/달러			위안/달러		
	2016년	6개월후	12개월후	2016년	6개월후	12개월후	2016년	6개월후	12개월후
평균	0.90	0.92	0.94	108.9	103.1	102.2	6.57	6.87	6.94
최고	-	1.00	1.18	-	120.0	125.0	-	7.20	7.20
최저	-	0.86	0.85	-	87.0	83.0	-	6.67	6.61

자료 : 국제금융센터(2016.8.22).

주 : 1) 2016년은 1월 4일 ~ 9월 12일간 평균.

2) 6개월후 및 12개월후는 2016년 8월 중순 기준.

3. 2017년 한국 경제 전망

○ 2017년 한국 경제는 개선세 부진 지속 전망

- 경제성장률 : 개선세 부진 지속 전망

- 성장률 자체로 본 경기 흐름은 기저효과로 인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개선되는 '상저하고' 예상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경제성장률(%)	2.6	3.0	2.1	2.5	2.4	2.8	2.6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6년 하반기 이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민간소비 : 증가세 정체 전망

- 최저임금 상승⁸⁾, 소비심리 개선 등은 민간소비에 긍정적이지만 고용시장 악화 및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은 소비 제약 요인
- 특히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과 인구고령화 진전, 주거비 부담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적으로 가계의 소비성향을 위축시키는데 영향
-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기업 구조조정이 경기 후행지표인 임금과 고용⁹⁾에 내년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하반기 민간소비는 다소 개선 가능성
- 2017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반기 1.7%, 하반기 2.3%, 연간 2.0%로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	2.2	2.7	1.1	1.9	1.7	2.3	2.0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6년 하반기 이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8) 2017년 최저임금은 2016년 보다 7.3% 인상된 6,470원임.

9) 경기변동에 따라 노동수요가 변화하면 기업은 일차적으로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이후 임금과 고용량을 조정하므로 임금과 고용의 후행성이 나타남.

- 건설투자 : 증가세 둔화 전망

- 과잉공급 및 가계부채 관리 등 건설투자 감소 요인이 부각될 우려
- 건축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건축 수주 실적 감소, 공급물량 조절 등으로 2017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3.9%로 2016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또한, 2017년 SOC 예산 규모는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공공 부문에서도 건설투자가 줄어들 전망
- 2017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3.0%, 하반기 4.6%, 연간 3.9%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건설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 (%)	3.9	10.3	4.8	7.3	3.0	4.6	3.9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6년 하반기 이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설비투자 : 회복세로 반등 전망

- 대내외 수요 부진, 산업구조조정,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
- 다만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등으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
- 2017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2.6%, 하반기 1.4%, 연간 2.0%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 (%)	5.3	△3.6	△1.5	△2.5	2.6	1.4	2.0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6년 하반기 이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수출입 : 증가세로 반등 전망

- 수출은 세계 경기의 전반적인 완만한 회복세, 국제 유가 상승, 달러 강세 및 엔화 강보합세에 따른 환율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다만,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르는 하방리스크는 여전히 상존
- 수입은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에 따른 원자재 수입 증가로 인해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 무역수지는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함¹⁰⁾에 따라 2016년보다 감소한 약 860억 달러 전망
- 2017년 수출 증가율은 상반기 5.8%, 하반기 2.0%, 연간 3.8% 전망

- 경상수지 : 전년보다 감소 전망

- 건설 및 운송수입 부진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2017년 경상수지는 2016년보다 감소한 890억 달러 내외 전망
- 2017년 경상수지는 상반기 430억 달러, 하반기 460억 달러, 연간 890억 달러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대외거래 전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억 달러)	1,059	499	496	995	430	460	890
무역수지(억 달러)	903	489	466	955	455	405	860
수출증가율 (%)	△ 8.0	△ 10.0	△ 0.3	△ 5.2	5.8	2.0	3.8
수입증가율 (%)	△ 16.9	△ 13.3	△ 1.5	△ 7.5	9.0	5.3	7.0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2016년 하반기 이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10)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총수출액 중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수출액 비중은 13.3%인 반면, 총수입액중 원유, 석유제품, LNG 및 화공품 수입액은 비중 31.4%(자료 : 한국무역협회). 유가 상승이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보다 수입액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

- 고용 : 부진 지속 전망

-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대규모 인력 감축 예상
- 경기 회복 부진으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역시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
- 정부가 일자리 관련 예산 확대 및 사업 내용 개편 등 일자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고용시장 여건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 2017년 실업률은 상반기 4.2%, 하반기 3.6%, 연간 3.9%로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고용 지표 전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실업률 (%)	3.6	4.1	3.4	3.7	4.2	3.6	3.9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이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물가 : 상승세 소폭 확대 전망

- 2017년 소비자물가는 국제 유가 상승, 원화 가치 하락 등으로 상승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
- 세계 원유 수요 회복, 산유국들의 생산량 조절 노력 등으로 세계 원유 수급 불균형이 완만히 해소되며 국제 유가는 2016년 대비 소폭 상승할 전망
- 이에 더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입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다만 국내 수요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폭 자체는 제한적일 전망
- 2017년 소비자물가는 상반기 1.3%, 하반기 1.4%, 연간 1.4%로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	0.7	0.9	0.8	0.9	1.3	1.4	1.4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이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한국 경제 전망표 (2016.9)>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2.6	3.0	2.1	2.5	2.4	2.8	2.6
	민간소비 (%)	2.2	2.7	1.1	1.9	1.7	2.3	2.0
	건설투자 (%)	3.9	10.3	4.8	7.3	3.0	4.6	3.9
	설비투자 (%)	5.3	△3.6	△1.5	△2.5	2.6	1.4	2.0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1,059	499	496	995	430	460	890
	무역수지 (억 달러)	903	489	466	955	455	405	860
	수출증가율 (%)	△8.0	△10.0	△0.3	△5.2	5.8	2.0	3.8
	수입증가율 (%)	△16.9	△13.3	△1.5	△7.5	9.0	5.3	7.0
실업률 (%)		3.6	4.1	3.4	3.7	4.2	3.6	3.9
소비자물가상승률 (%)		0.7	0.9	0.8	0.9	1.3	1.4	1.4

4. 시사점

- (전망의 요약) 내년도 한국 경제는 성장률 자체로는 올해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미약하지만 증가세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출 반등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 부진으로 3년 연속 2%대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답답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령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가 정체되는 가운데, 지속되는 저성장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도 기대하는 만큼 개선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또한 그나마 한국 경제를 버텨왔다고 평가받는 건설투자에서 공급 과잉 등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이다.

- (시사점)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대응 방안

첫째, 내수 기반 강화를 위해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에 주력해야 한다.

- 경제성장 둔화로 가계소득 증가가 제한된 상황이지만 소비 여력 확충, 소비심리 안정, 가계부채 연착륙 등 민간소비 확대의 기반이 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 기업의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마찰적 실업 축소 등 고용 창출력 극대화로 가계의 소비 여력 확충
- 재고 증대 압력 해소와 민간소비 확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상품군별 제조기업과 유통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 심리를 개선해야 할 것임
- 실물자산의 유동화, 가계 부채 만기 장기화 등을 통해 가계 부채 문제가 향후 도래하는 경기 회복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연착륙 노력 필요

둘째, 기업 투자에 대한 신속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력과 고용 창출의 원천인 투자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 과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심리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함
- 정부는 미래 신성장 산업 지원 정책의 신속한 구체화를 통해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열어주어야 할 것임
- 4차산업 혁명 등 이제까지 없었던 신산업 등장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가급적 많은 것을 허용하되 해서는 안 되는 일만 명문화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셋째, 건설투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지 않도록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고, 국내 건설사들도 이를 대비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수요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SOC 예산 유지, 민자 유치 및 활성화, 노후/안전 취약 시설 유지보수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

넷째, 국내 수출 회복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2017년도 수출 증가의 주요인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개선 측면이 크며, 세계 경제 회복세가 강하지 않고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르는 소비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견조한 수출 성장은 쉽지 않은 상황

- 기존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망 수출 품목을 개발하고 인도, 베트남, 이란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
- 특히, 우리의 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 경기 회복을 위해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중국의 소비 시장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한 공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함

다섯째, 실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무리 없는 산업합리화 정책 추진을 통해 민간 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

- 불황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불안과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고 문제가 우려되는 바, 기존 사회보장 정책을 점검 및 개선하고 부정 수급 등의 공공자금 누수를 차단하여 실효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임
- 최근 산업합리화 정책이 자칫 산업기반의 붕괴와 이에 따르는 고용 상황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조조정 속도의 완급조절과 고부가 분야 및 신산업으로의 신속한 산업구조 전환과 유희 인력 방지 노력이 필요함

여섯째, 중장기적으로도 구조 개혁, 노동공급 확충, 생산성 혁신, 재정건전성 강화 등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제체질 개선』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금융, 교육, 공공부문의 구조 개혁 추진력을 강화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임
- 미래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촉진, 고령자의 정년 연장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인적자본 투자 확대와 경제 시스템 중심의 내연 성장을 위한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여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현실적인 세입, 세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HRI**

2017년 한국 경제 전망 참여 연구진

【총괄】	주원	경제연구실장	(juwon@hri.co.kr, 02-2072-6235)
【대외여건】	홍준표	동향분석팀장	(jphong@hri.co.kr, 02-2072-6214)
【소비】	김천구	연구위원	(ck1009@hri.co.kr, 02-2072-6211)
【투자】	정민	연구위원	(chungm@hri.co.kr, 02-2072-6220)
	김수형	연구원	(soohyung@hri.co.kr, 02-2072-6217)
【대외거래】	백다미	선임연구원	(dm100@hri.co.kr, 02-2072-6239)
【고용·물가】	조규림	선임연구원	(jogyurim@hri.co.kr, 02-2072-6240)
	오준범	연구원	(jboh19@hri.co.kr, 02-2072-6247)